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2-학인-00009 교사들의 부적절 언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前□□□□□고등학교 ○○○ 학생의 父)
피 해 자 ○○○(前□□□□□고등학교 학생)
피 신 청 인 1. ◎◎◎, 2. △△△(□□□□□고등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 1.이 피해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1.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인권교육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 1.이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언어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주장 중 신청요지 2)는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2022. 6. 7.(화)

나. 신청인: ◇◇◇(○○○ 학생 아버지)

다. 피해자: ○○○(前□□□□□고등학교 2-1)

라. 피신청인: 1. ◎◎◎, 2. △△△(□□□□□고등학교 교사)

마. 신청요지

- 1) 피신청인 1.이 2022년 3월경 저녁 기숙사 청소시간에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는 왜 손에서 똥 냄새가 나니? 좀 씻고 다녀라”,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야”라고 이야기했다.

- 2) 피신청인 2.가 2021년 피해자의 담임교사였으며, 1학기경 학교에 적응이 안 되면 자퇴나 전학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여, 4명 정도 학생이 자퇴나 전학을 갔다.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피해자)의 주장

-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의 주장

가) 사실확인서 진술(2022. 4. 21.)

“어유 야, 근데 손에서 똥 냄새 난다. 가서 씻어”(‘담배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서 다행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농담으로 얘기했음.) (실제로 나도 학생들에게 “세탁할 때 장갑을 벗었더니 내 손에서 똥 냄새가 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농담으로 얘기함.)

“근데 너 고양이¹⁾ 괴롭히고 다닌다는 소문이 많이 돌아. 고양이 그만 괴롭혀~ 그러면 사이코패스 소리 들어”(피해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사이코패스라 지칭한 것이 아닌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

1) ‘▽▽이’라고 불림. □□□□고등학교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

는 의미로 얘기했음.)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2022. 5. 27.)

손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안 났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담배 안 피웠네 잘했어” 했더니, 학생이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건데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 손에서 똥 냄새 난다. 가서 씻어라” 하면서, 똥 냄새라는 게 저희 학교가 말을 다루는 학교다 보니까 똥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말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똥 냄새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된 농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저한테 자주 선생님, 똥 냄새 나는 것 같다는 농담이나 장난을 하기도 하고 저도 가벼운 농담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똥 냄새라는 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가벼운 농담 정도로 다들 그렇게 받아 들이는 상태고 저도 그렇고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맞지만 ○○○ 학생 아버님과 통화 녹취 중에 제가 인정한다는 부분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지 실제로 ‘사이코패스 새끼야’라고 욕을 섞어서 쓰거나 그 학생에게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학생에게 했던 말은 “너 고양이 괴롭히고 다닌다는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 ▽▽이 그만 괴롭혀. 자꾸 그렇게 고양이 괴롭히고 그러면 사이코패스라는 소리 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면담(문답) 조사 진술(2022. 7. 7.)

2022년 3월말 오후 9시 정도에 피해 학생과 몇몇 학생들을 분리수거장에서 여자 기숙사로 가는 통로에서 마주쳤다.

피해 학생과 만났을 때 주위에 1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던 것으

로 기억하는데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 학생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학생이 “○○이가 고양이 때렸어요(괴롭혀요)”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 학생이 자리에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 ㉹㉹㉹ 학생과의 갈등은 없었다.

피해 학생에게 “사이코패스 새끼야”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저도 궁금하고. 제가 피해 학생과 갈등도 없었고 많이 챙겨 줬는데 제가 그 학생에게 했던 호의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생각한다.

이전에 피해 학생이 고양이를 심하게 괴롭힌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지도를 한 것이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

육체적인 활동 및 실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점점 지쳐 가면서 말 관리 수업과 운동 관리 수업 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는 학생, 배가 아프다고 보건실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한 일부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월요일에 예약을 하여 금요일까지 출석인정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몇몇 학생들은 육체적인 실습을 견디지 못하고 무단으로 집으로 귀가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 반 학생들의 출결이 좋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착실하게 학생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말 숫자가 많아졌고 말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조차 지치게 되어 반 분위기가 다들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저는 반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반 전체 학생들에게 말 관련 산업체에 취업하게 되면 한 명이 관리하는 말들이 최소 2마리는 넘는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며 설득해 보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배수의 진으로 저는 전학 절차 및 자퇴 서류를 인쇄하여 반 전체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성과 진로와 맞지 않다면 새로운 진로를 위해 전학이나 자퇴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다.

1학년 때 입학한 학생 중 자퇴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두 교우관계와 진로 변경의 사유로 전학을 갔다.

다. 참고인 주장

1) ㉹㉹㉹(이하, '참고인 1.') 학생

가) 피신청인 1. 관련

저희가 이제 기숙사 청소 시간에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피해 학생이랑 1학년 애들 세 명인가 있었다. 저희가 쓰레기 버리는 데서 나오니까 피신청인 1.이 저희한테 “다 피고 왔냐?”, “다 피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손 냄새를, 손 쥐봐 이렇게 하셨나 그랬는데 피해 학생이 “안 폼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저 뒤쪽으로 계단 올라가고 있었는데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뭐라 뭐라 하다가 제가 장난으로 “ 쌤, ○○이가 고양이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피신청인 1.이 “○○이 너 그런 얘기 들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이코패스 새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피신청인 1.이 그냥 장난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피해 학생이 그걸 듣고 발끈했다.

(피해 학생이) 그때 “ 쌤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되게 화났는데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다. 그냥 거기까지 듣고 저는 피해 학생이 그러고 있길래 그냥 계단 올라가고, 얼마 안 있다가 피해 학생이 뒤에 같이 따라오고 끝났던 거 같다.

당시에 1학년 학생들도 같이 있었는데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다.

(피신청인 1.에게 “고양이(▽▽이) 때렸어요”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애들이랑 장난치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신청인 1.도 그런 얘기를 저 말고도 한 번씩 들었다고 하였고,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린다고 얘기를 했다.

나) 피신청인 2. 관련

(피신청인 2.가 자퇴나 전학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강요는 아니었다.

애들이 말 안 타던 애들도 있고, 말도 잘 안 타고 애초에 말 쪽으로 올 생각 없이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개네들이 여기 있어봤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인문계를 가서 공부를 해라, 전학을 가라, 전학 가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학교에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그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2) ■■■■■ 외 학생들(2022. 6. 7.)

(피신청인 2.가 전학과 자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학교랑 안 맞는

애들이 1학년 1학기 때쯤 먼저 전학을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러면 2학년 때 늦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

(피신청인 2.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별 생각 못 했다. (어차피 전학이랑 그 생각 안 해서 못 했다.)

전학 간 친구들은 학교가 안 맞아서 몇 명이 갔고, 전부 다 적성이 안 맞아서 갔다.

라. 사실확인서

1) 피해 학생 사실확인서(2022. 4. 8.)

22년 3월, 어느 수요일(또는 목요일) 저녁 청소시간에 (중략) 손 냄새를 맡고 '너 손 안 씻은 지 오래 됐지. 왜 똥 냄새가 나'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욕했지만 참았다. 나는 그때 당시 말 관리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고인 1.이 웃으면서 장난으로 '선생님 ○○○ ▽▽이 괴롭혀요'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알아 이미 소문 다 났어, 저런 사이코패스 새끼'라고 하였다.

2) 참고인 1. 사실확인서(2022. 4. 12.)

1학년 애들이랑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나오는 길에 피신청인 1.을 만났다. 피신청인 1.이 담배 폼냐고 의심을 했는데 피해 학생이 '담배 안 폼으면 어떻게 할꺼예요?'라고 했던 거 같다. 그리고 있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올라가면서 ' 쌤, ○○이가 ▽▽이를 발로 찼어요'라고 장난으로 말했는데, 피신청인 1.이 사이코패스 새끼라고 했다.(내가 느끼기에는 장난으로 들렸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 쌤, 싸이코패스 새끼라니요?"라고 말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위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 1. 관련

가) 피신청인 1.은 2022년 3월경 피해 학생에게 ‘손에서 똥 냄새 난다. 가서 씻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 피신청인 1.은 2022년 3월경 피해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2) 피신청인 2. 관련

가) 피신청인 2.는 2021년경 학급의 학생들을 지도하며, 전학 절차 및 자퇴 서류를 인쇄하여 반에 놓고, 반 전체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와 맞지 않다면 새로운 진로를 위해 전학이나 자퇴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다.

나. 판단

1)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층 더 유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1.은 2022년 3월경 피해 학생에게 ‘손에서 똥 냄새 난다. 가서 씻어’라고 말을 하고, 이후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 1.이 피해 학생에게 ‘손에서 똥 냄새 난다. 가서 씻어’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사용은 피신청인 1.과 피해 학생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피신청인 1.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피해 학생에게 ‘사이코패스 새끼야’와 같이 욕을 섞어서 말하거나, 피해 학생을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한 적은 없고, 다만, 피해 학생에게 “너 자꾸 고양이 괴롭히면 사이코패스라는 소리 들어”와 같이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피신청인 1.이 당시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야”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 1.은 피신청인 1.에게 장난으로 “썸, ○○이가 고양이 때렸어요.”라고 얘기를 하자, 피신청인 1.이 피해 학생에게 “○○이 너 그런 얘기 들었다.”, “사이코패스 새끼”라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 학생과 참고인의 주장은 피해 학생(2022. 4. 8.)과 참고인 1.(2022. 4. 1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참고인 1.의 주장이 일관된 점, 참고인 1.이 거짓 진술 등으로 피신청인을 괴롭힐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1.이 피해 학생에게 “사이코패스 새끼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해 학생은 “손에서 똥 냄새 난다.”, “사이코패스 새끼”라는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욱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똥 냄새”라는 말이 피신청인 1.의 진술과 같이 해당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지라도 이 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리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더해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장난이라 하더라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 1.이 피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3)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2.는 2021년경 학급의 학생들을 지도하며, 전학 절차 및 자퇴 서류를 인쇄하여 반에 놓고, 반 전체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성과 진로와 맞지 않다면 새로운 진로를 위해 전학이나 자퇴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참고인 학생들 또한, 피신청인 2.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 2.의 학급에서 학교를 전학한 학생들은 있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한 학생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2.의 위와 같은 언행을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 2.의 언행은 학생들에게 자퇴나 전학을 종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보다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늦지 않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2.가 학생들에게 자퇴나 전학을 종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피신청인 2.에 대한 구제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4) 결론

학교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부적절한 언어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교육방법 등에 반감을 불러일으켜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 교육의 목적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을 “사이코패스”에 빗대는 언어 사용은 학생들에게 모욕감과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1.과 같이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의 언어 사용에 대한 시정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 2.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기 영 (인)

[붙임]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1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③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각 할 수 있다.

1. 조사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